

### 제놀루션, 카이스트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엑소좀 분리기술 도입을 통한 자동화 플랫폼 개발 진행 예정
- ▶ 차세대 진단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한 액체 생검 전문기업으로의 도약 기대

**<2021-08-23>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225220, 김기욱 대표이사)이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와 엑소좀(Exosome) 분리 기술을 포함한 2종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제놀루션이 카이스트로부터 도입하는 엑소좀 분리 기술은 폴리페놀을 이용해 다량의 인체유래 시료로부터 엑소좀을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필터를 이용한 소변의 전처리 방법과 여과장치 특허를 통해 소변에서도 순도 높은 엑소좀을 분리할 수 있다.

엑소좀은 소변, 혈액 등 다양한 체액에 존재하는 30~100nm 크기의 소포체(Vesicle)이다. 세포 간 정보 교환을 위해 분비하는 물질로 세포 내부의 단백질, 핵산, 지질 등 다양한 물질을 다른 세포로 전달한다.

최근 조직생검에서 액체생검으로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인체유래 시료에 포함된 엑소좀의 연구와 임상적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엑소좀은 내부의 RNA, 단백질 등으로 암과 같은 질환의 예측, 조기진단 모니터링이 가능해 차세대 진단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제놀루션은 액체생검에 필요한 엑소좀 분리 부문의 기술 2종을 이전받아 자동화 플랫폼(장비 및 키트)을 개발해 제품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카이스트와의 기술 자문과 개량 기술 공동연구를 통한 특허권을 추가 확보해 차세대 진단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놀루션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전으로 엑소좀 분리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과 현재 개발 중인 cfDNA 추출 플랫폼을 보유하게 됐다"라며 "암 검사에 혁신기술인 액체 생검 시장진입을 통해 추출시스템 분야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